

주제: 예배와 예배당

강사: 이정현

## 1. 서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예배의 공간적 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독교의 예배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율법에서 자유한 기독교인들은 정해진 특별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초 장소적 예배가 가능해졌다. 교회를 통해 보더라도 신자들은 어디에서나, 즉 들에서나, 지하 묘지에서나, 강가에서, 감옥에서, 선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통상적으로 예배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Architectural Setting”, Westminster Dictionary of Worship, edited by J.G.Davies,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72:21ff.).

그리스도 이후는 장소적인 문제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요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개념과 신약의 교회개념을 잘 연결하지 못한데서 오게되는 신학적 오해로 인한 개념들이 아직도 교회안에 잔존해 있음을 본다. 구약의 성막, 성전이나 회당이 신약의 예배당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예배당을 제단이나 성전으로 부르고, 신성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예배당의 개념을 필두로, 예배처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예배당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성구들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예배학적 입장에서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2. 예배당의 개념

하나님은 선택한 성도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도 화목이 있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개인주의를 유발하지 않으며 성도들간의 결속과 사랑을 늘 강조하고 있다(요일3:16). 이에 성도들의 회집장소가 필요했으며 주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예배당은 필요했으므로 교회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예배당에 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적 의미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의미가 다르다.

### 1) 구약적 의미

구약에서 교회의 주요한 칭호는 ‘부르다’(to call)를 뜻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특별히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서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특정장소화할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장소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 이런 특정장소에 대한 언급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제단과 광야에서의 회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등으로 나타난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성전은 훼파되었고 그 후부터는 회당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집장소로 지속되었다.

### 2) 신약적 의미

신약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명칭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엑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불렀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집회장소’라는 말로 ‘한곳에 모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엑클레시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렀다는 뜻이고, 쉬나고게는 그리스도안에서 영적으로 결합된 집회장소를 뜻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처소(예배당)로서의 의미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나 ‘하나님 임재’의 개념은 구약과 다

른 의미를 갖는다.

구약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교제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참된 성전이 되셨기에 이제 교회와 개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고전3:16, 6:19),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연합되고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다(엡2:21). 따라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이다.

### 3. 예배장소의 시대적 변천

성경의 초점을 예배에 두면 성경이야말로 예배에 관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오순절 성령강림 후 초대교회가 생성될 때까지의 예배와 중세 때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예배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배당과의 깊은 관련성을 알 수가 있으며 예배당의 변천과 그 흐름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예배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예배의 흐름에 따라 예배당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배의 변천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예배당과의 관계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1) 에덴동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으로 인간을 식물, 동물 등 다른 생명체와 구분시킨다. 타락이전의 원초적인 예배는 죄의 장벽으로 인한 방해가 없었다.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예배였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창조자와 직접 교제를 하고 언제나 직접 그분의 면전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이 교제는 끊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즉 직접적인 예배에서 쫓겨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의 희생이 요구되었다.

#### 2) 족장시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창12:8, 13:18),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단을 쌓았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하였다(창28:10-20). 아브라함의 제사를 좀더 알아 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제사를 드렸다. 창세기12:6-9에서 아브라함이 세겔 땅에 거할 때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다. 즉 언약의 제사의 성격을 띤다. 그런 후 8절에서 다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자신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행위를 한다. 창세기13:4에서 다시 벧엘, 13:18에서 헤브론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리하는 중에도 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 3) 모세시대에서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그들을 시내산에 소집하셨다. 하나님은 대언자 모세를 통해 자신의 명령을 공포하신다. 여기에서 예배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방화하는 동안 예배의 장소로 사용할 특별한 성막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신다. 그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금, 은, 놋, 청색실, 홍색실, 가는 베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물돼지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였다(출25:3-7). 이처럼 장식 하나 하나가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8:5)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친히 성막의 목적을 가리켜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기 위함이었다(출25:8-9, 44-45).

#### A. 성막

성막예배의 중심은 의식 율법 가운데서도 제사제도였다. 이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세운 언약의 제사에 근거를 둔다(출24:4-8). 하나님은 성막에서 행할 제사에 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다. 이 제사 제도는 단지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주관적인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세운 기계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실제적으로 대속하기 위해 세운 제도였다. 죄값에 따라 공의롭게 죄인들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속하기 위한 대속물의 피를 흘렸다. 이 모든 속죄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대속사역을 예표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속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직무는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이었다(민16:9).

#### 4) 이스라엘 왕국시대부터 예수님까지

##### A.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양은 성막과 유사하였으나 길이는 더 길고 화려하게 구상되었다. 성전의 기둥들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계시될 영적인 실체를 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점이었으며 예배장소였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공동예배의 처소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소였다. 이전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 예배의식은 성막의식과 비슷하였다. 제의 율법의 제사제도가 계속되었고 번제단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바깥 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윗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재조직하여 성전사역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세웠다(대상23-26장). 이 제사장들은 제사의 감독인들이었고 성전에서 매일 예배에 참석했다.

##### B. 회당

솔로몬 성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성전파괴 이후 70년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공 예배를 갈망했으며 특히 절기와 안식일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회당의 시초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간단한 회당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건물에 함께 모였으며 이것이 유대주의의 종교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회당의 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 두루마리를 담고 있는 작은 궤였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성경봉독과 강해는 회당의 기본기능이었다. 회당은 제물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석하셨다. “어느 안식일 날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다”(눅4:16).

루이스 부이에(Louis Bouyer)가 제시한 초기 회당의 모델에서는 회당 건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Bouyer, *Liturgy and Architectur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7:8-24).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화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회당은 아래와 같다.

이 회당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신학적 특성은 회중석의 위치와 회중석이 둘러싸고 있는 기구들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가장 귀중히 여겼던 성물을 기억하게 하는 법제가 있고, 그것을 보호하는 휘장이 있고 또한 휘장 앞에는 일곱 가지의 등대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바(bema-거룩한 장소로, 성경봉독과 설교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약간 높은 단)가 있었고 그 위에는 강대상이 있었다.

#### 5) 초대교회

구약시대의 속죄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가 되었고,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도 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1)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회당과 성전에서 동시에 드러졌다. 예수님도 회당과 성전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7:22, 눅4:16) 성전제사의 원리는 인정하셨으나-예루살렘 입성시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서 보듯-성전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를 새롭게 갱신하셨다. 즉 인간을 위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한 번의 희생을 자신의 육체로 드리심으로 성전예배의 성취를 가져오신 것이다.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회당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곳에서도 구약의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임을 강조하셨다.

##### (2) 사도시대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행2:6, 20:6, 16, 눅24:53, 고전16:8) 유대인들처럼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을 믿으며 그에게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회당 역시 사도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한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독자적인 회당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성전과 회당 이외에도 특정한 개인의 집이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볼 수 있고(행2:46-47, 5:42), 그 밖에 두란노 서원(행19:9) 같은 데서도 말씀과 가르침과 설교가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집이나 서원 같은 곳이 발전하여 성전이나 회당과는 별도로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형성되어진다.

예배당은 제단, 성막, 성소, 성전, 회당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사역을 기점으로 형식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지만,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약의 성전예배를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다.

#### 6)고대 수리아 교회

부이에는 이 건물이 유대회당이 기독교화 된 것같이 보인다고 했다(Bouyer 1967:24-39). 이 말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어려워지자 단독적으로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써 과거 회당 예배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현실에 맞추어 예배당을 만들어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유대교적인 상징물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첫째는 회중의 눈이 집중되는 앱스(apse-예배당 동쪽의 반원형 부분)에 상이 놓여졌다. 감독이 이곳에 들어가 성찬을 거행하였다. 둘째는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건축되지 않았고 동쪽을 향하여 지어졌다. 이것은 세계 사방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동방에서 채림하실 것을 상징한 것이다.

#### 7)로마 바실리카식 교회

교회가 건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경부터이고(Theodor가 206년에 Ravenna에 세움),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후 부터였다(김득룡 1992:381). 위의 도표는 바로 콘스탄틴 황제때의 건물이다. 이 당시에 로마 바실리카(basilika=왕의, 화려한의 의미)식 건물이 많이 세워진 것은 수 많은 회중들을 수용하기 위함과 급증하는 계급제도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다. 공간 사용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감독의 좌석이 회중석에서 제단 위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교회가 점차 제도화 및 계급화 되었고 그리하여 감독의 권위는 높아져 존경과 권세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예배를 회중 전체의 일에서 성직자들의 특권으로 바뀌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았다.

둘째는 베마를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법케는 사라졌고 약간 높은 단도 없어졌고 일곱가지 등대는 큰 촛대 하나로 대체 되었다. 이런 공간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고 특히, 감독과 성직자가 회중으로부터 분리 되어, 예배의 성직자 전유물화로 전락하고 만다.

#### 8)후기 중세 교회

초기 중세 시대의 예배에 대한 성직자 전유물화 경향은 예배신학이 계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후기 중세에 들어오면서 더욱 고착화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현상은 교회를 제단들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다. 측면 제단들이 생겨난 이유는 미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희생이라는, 점증하는 확신에 기인한 결과였다. 여러 제단에서는 각종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미사가 진행 되었다. 맥스웰은 이런 제단에서, 여행을 떠난 자의 무사를 비는 미사, 병의 회복을 비는 미사, 도둑을 잡고 도둑 맞은 물건을 되찾게 해 달라는 미사, 비나 혹은 청명한 날씨를 비는 미사, 포로 석방을 위한 미사, 또한 다른 이의 죽음을 비는 미사까지 있었다고 지적한다(Maxwell 1939:68).

#### 9)개신교 교회

중세시대에 예배의 의미가 상실되자 예배에 대한 오해가 공간 사용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예배의 이 같은 타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개혁자들이 각국에서 일어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초대교회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표어아래 목숨을 내 놓은 각국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예배공간 만큼은 그들이 평소 사용하고 있었던 성당과 교회 건물의 일부를 변경하여 쓸 뿐이었다. 다음은 쓰빙글리에 관해 탐슨(Bard Thompson)이 지적한 한 예이다. “1524년 여름에 교회의 청결이 시작 되었다. 쓰빙글리와 그 동료들은 각종 기술자들을 데리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 하였다. 그들은 성물을 철거하고 사당다리를 벽에 걸쳐 놓고 그림들과 장식들을 안 보이게 철거하였으며, 조상들과 장식품들과 금은 세공품들과 화려한 의복들과 아름답게 장식된 예배서들을 모두 내다 버렸다. 그들은 어떤 음악도 교회에서 다시 울리지 못한다는 표시로 오르간을 막아 버렸다. 회중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강한 표시였다”(Thompson 1974:142).

개신교 사상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는 1544년 말틴 루터가 성전 봉헌설교를 했던 Torgauer성의 교회로 개신교 교회 건축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건축물조차도 개신교 고유의 건축 구조를 갖지 못하고 전통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정인교 1997:111).

개신교회의 예배당 공간 사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대상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설교에 강조점을 둔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둘째는 성찬상을 강단 아래에 두거나 강대상 보다 덜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찬이 설교보다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혁자들이 예배의 본질적 갱신을 외부적 공간 사용의 갱신으로 표현하려고 했듯이 작금의 개혁교회도 이것을 잘 조화하여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예배당의 외형 및 내부

#### 1) 외형

예배당의 외형이 예배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특징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예배당의 외부도 인간에게 말하고자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기독교적 의미를 지녀야 하겠다.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 사람들로 교회당임을 알 수 있게 건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종탑(교회의 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종탑을 건축하게 된 것은 8세기부터이다)이나 십자가 탑을 세워 교회당임을 표시하기도 했고 암스텔담에서는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폴란드의 어떤 카톨릭 교회는 고기 모양의 예배당을 지음으로 이 건물이 예배당임을 표현했다. 하지만 미국 남부 지방의 교회 건축은 대다수가 현대식 건물이나 기독교적 외부적 표시가 없음으로 공회당인지, 예배당인지, 사무실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 같은 건축 양식은 예배당의 외부 모양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본다. 최소한 공간의 언어적 표현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임은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은 지역의 건축문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골 기와집이 많은 동네에 초 현대식 건축 양식의 예배당을 짓는 것과 변화한 도시 한 복판에 목조 건물의 예배당을 짓는 것은 주위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사회성과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양식이면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지역의 불만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음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임을 알고 기독교와 문화의 세계성과 고장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내부

예배에서의 공간은 세상의 구속이 공연되는 무대이다. 회중석, 성가대석, 집례자석, 그 밖의 복음을 공연하는 배우들의 좌석 등의 공간적 배치뿐 아니라 성찬상, 강대상, 그리고 세례반 같은 구속의 상징들을 통해서 구속의 진리가 표현되는 것이다(웨이버 1988:192-193). 공간의 구속적 이해 측면에서 예배당 내부 구조의 적절한 배치의 중요성을 갖는다.

### (1)설교대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중요시함으로 예배당 건축에서 설교단을 화려하게 하거나 장엄하게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회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단을 3-4미터로 높이는 경우가 다반사 였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를 비하하여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설교대는 설교만 행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경을 낭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4-5세기의 예배당에 이미 성경 낭독대(ambo)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아 성경봉독을 설교대에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재단을 중심으로 양쪽에 성경낭독대를 두었다. 회중을 향해 오른쪽 대에서는 구약과 서신서를 읽었고 왼쪽대에서는 복음서를 읽었다. 영국 성공회는 설교대 반대편에 놓여있는 것을 낭독대라 했는데 거기서 정해진 성경일과를 낭독했다. 스코틀랜드 교회와 기타 개혁파 교회에서는 낭독대를 따로 두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낭독대를 따로 두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영국 국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김소영 1974:134-135).

### (2)성찬대

카톨릭교회, 성공회, 루터교회에서는 성찬대를 제대(祭壇)라고 부르는데, 이는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견해에서 온 칭호이다. 3세기 경에는 순교자들의 묘 위에서 성찬식을 행하기도 했으며 성찬대 위에 십자가나 촛불을 켜 두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듯 하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없앴다.

국내의 경우, 설교단 밑에 성찬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성찬대를 보통때는 중 강단으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장년예배의 사회대나 기도대로 대부분 이용된다. 성

찬상이 이 같은 대용물로 전락해버린 것은 무지와 무관심의 소치임으로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성찬상이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언제나 또 하나의 강도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한다. 바른 성찬을 통하여 이 모임이 교회임을 들어내고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회상,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의 죽으심을 오실때까지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3)성가대석

예배 안에서 성가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말씀과 성례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단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성가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대원은 예배 순서의 한 담당자로 회중을 대표하여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존재로 회중의 일부이다.

성가대석을 예배당의 한 특별한 장소에 두는 것은 12세기 이후부터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층 뒷 좌석에 성가대석을 두기도 하고, 반대로 강단 뒤에 성가대석을 두기도 하나, 둘 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전자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리는 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성가대의 역할을 다소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하는 약점이 있으며, 후자는 비록 회중을 대하여 찬양한다면 음악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가대가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성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에 좋지 못하다. 성가대석이 회중을 정면으로 대하거나, 등지거나, 또는 설교단을 등지고 전적으로 회중을 향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도 옳지 못하다.

성가대석은 강대상 옆에 예배의 중심부와 회중을 동시에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회중의 일부로서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성가대 본연의 임무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 (4)회중석(nave)

회중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백성이 한 가족으로 설교대와 성찬상을 중심으로 둘러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중석이다. 일반적으로 회중석이라함은 강단을 바라보고 일반 예배자들이 앉는 곳을 말하는데, 몇 줄의 직선과 둥근 원형식으로 되어있기도 하다. 친교와 공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회중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정방형, 팔각형, 장방형, 원형 등이 있다.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강단을 중심으로 60도 정도의 범위에서 자리가 정리되면 좋을 것이며, 예배의 중심부가 삼방에 둘러 쌓인 것 같이 회중석을 배치하면 좋을 것이다. 회중석과 내부의 분위기를 우아하고 엄숙하게 하여 예배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다운 자세를 확립시켜야 한다.

### (5)강단배치

예배의 중심부인 강단(chancel)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강단 위치의 배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성찬상을 중심에 두고 그 좌우에 설교대와 낭독대를 두는 방식이다. 이것은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주로 카톨릭교회와 성공회, 루터교회가 취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설교대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 성찬대를 두는 형이다. 이것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개혁신교회에서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두 번째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설교대 맞은편에 사회상을 두고, 둘 사이 중간 밑에 성찬상을 둔 것이다. 이 경우 사회상은 설교대에 비해, 크기나 질로 보아 떨어지는 기물을 배치한다. 이 같은 삼중 강단은 교권과 교회 직분의 계층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당회장은 높고 웅장한 설교대에 서고, 부목사는 예배 인도자로 사회

상에 서고, 전도사는 아랫 성찬상에 서서 그것을 이용하니, 직분의 계층화가 뚜렷이 이루어진 것이다.

강단 배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외형적 위엄과 권위 의식을 가지고 설교단을 너무 높게 하지 말 것이다. 둘째, 성경봉독대를 따로 두지 말고, 성경낭독은 설교단에서 같이하라. 셋째, 설교단을 중심으로 성찬상과 다른 기물들을 배치할 것이다. 넷째, 강단 뒷벽을 너무 요란하게 하거나 그림이나 십자가 장식을 피하고 고운 무늬목이나 단순한 미장용 벽돌로 장식하여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연출이 필요하다.

## 5. 결론

중요한 것은 예배당의 신학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 공간 사용의 언어를 적절히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별된 장소임을 나타내야 하겠다. 또한 강단의 배열과 회중석 그리고 성가대석의 적당한 배치는 성경과 신학과 삶과 분위기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태도를 갖추게 한다. 쓸데없는 권위 의식과 허영심에서 예배당을 장식하려고 하지 말고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안에서 예배의 두 기둥인 설교와 성찬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사회 속에 교회가 있음을 알고 예배당을 선행과 선교에 유익한 곳으로 개방해야 하겠다.